

THE
HUNDREDNINTH K C

NEWS

LETTER

november

11

1. KC글라스, 2018 년 독일 국제유리박람회 참관
2. KC글라스, 2018년 협력업체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3. KC환경서비스, 건설부문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4. KC코트렐, WAPC 개최
5. KC그린소재, 삼척에코건자재 플랜트 준공식
6. KC코트렐 한국, 창립 45주년
7. KC코트렐 베트남, 창립 10주년
8. KC코트렐 인도, 창립 10주년

1.

KC글라스, 2018년 독일 국제유리박람회 참관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국제전시장에서 2018년 국제유리 박람회(이하 "Glasstec 2018")가 개최되었다. Glasstec 2018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리산업 박람회로 2년 주기로 개최되며 올해 25회째를 맞이했다. 총 9개의 메인 전시홀에서 병유리를 비롯하여 유리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리관련 제품과 제조설비 등이 전시되었으며, 4만2천명의 방문객이 참관했다. KC글라스도 매회 박람회 참관을 통해 세계 유리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선진기술을 직접 접하여, 설비의 운영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이번 Glasstec 2018에는 김정완 대표 이사를 비롯해 생산 오자영 상무, 제조 원용학 파트장이 참관하였다.

올해 Glasstec 2018의 핵심 전시 주제는 Industry 4.0, 박판 유리, 스마트글라스, 특수유리 등이었으며, KC글라스는 특히 Industry 4.0과 관련된 기술에 주목하였다. 많은 업체들이 Industry 4.0에 대비한 Smart Factory 관련 기술과 제품들을 전시하여 많은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특히, 프랑스 Tiama사가 전시한 IQ Scan은 IT 지능형 소프트웨어로서, 기존 설비의 교체 없이 각 공정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모니터링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또한, 여러 기업에서 출시한 Hot Inspection Machine은 성형된 유리병이 서냉로에 들어가기 전에 병의 복사열을 바탕으로 두께, 무게, 온도 등을 측정하여 불량률의 원인을 제조 근무자가 즉시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제병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금번 Glasstec 2018 참관을 통해 유리산업의 최신 동향과 신기술, 신제품 등을 파악하여 변화하고 진화하는 유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 KC글라스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 생산 시스템을 Smart Factory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끝)

2.

KC글라스, 2018년 협력업체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KC글라스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을 말하다”

KC글라스가 지난 1971년 창립이래, 47년간 질적, 양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내며 제병 강소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와의 굳건한 신뢰와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4차 혁명시대의 도래와 침체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KC글라스는 년 1회 이상 주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11월 09일 경기도 안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자재 및 제조 설비들을 공급하고 있는 7개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KC글라스는 오랜 기간 끈끈한 협력관계를 이어오면서, 원자재 및 제조설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또한 최근 국내외 원자재 수급 및 가격동향 등을 분석하고 파트너십 강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모처럼 도심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간 폭넓게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KC글라스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방안과 합리적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하고 특화된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원 팀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끝)

3.

KC환경서비스, 건설부문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KC환경서비스는 2018년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종합건설업 면허를 11월 12일 등록 완료하였다. 종합건설업 면허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총 5가지로 분류되며 KC환경서비스는 이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였다.

KC환경서비스는 건설부문 종합건설업을 신규 등록함으로써 앞으로 관계사의 건설용역관련 종합 건설업 필요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주요 1군 건설사 및 관급공사에 단독 투찰이 가능하게 되어 건설부문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

4. KC코트렐, WAPC 개최



지난 11월 12일부터 3일 간에 걸쳐 KC코트렐 한국에서 2018 WAPC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WAPC컨퍼런스는 환경엔지니어링 사업부문의 관계사들이 모여 해당년도의 사업성과와 다음 해의 사업전략을 공유하며, 법인 간 네트워킹하는 자리로 매년 11월에 열리는 큰 행사이다.

2018년도에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전년도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전략회의 및 이사회 시간을 하루로 축약하였으며,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신사업 및 신기술을 공유하는 테크니컬 세션의 주제가 다채로웠다. 영국법인에서는 TCR(Thermo-Catalytic Reforming)에 대한 소개 및 RECYCLING & MATERIAL RECOVERY Via Integrated Particle size reduction & Gasification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KC코트렐 한국의 신사업인 RTO에 대한 발표, 그리고 KC코트렐 인도법인은 KC의 새로운 집진기 형태인 "I"타입 집진기를 소개하였다.

한편, Nol-Tec Systems의 새로운 CEO, Todd Larson이 처음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하였고, KC코트렐 인도법인의 Sudip, B.S. Singh, Harinder가 I type 집진기 홍보 차 한국을 방문하여 올해 컨퍼런스를 빛내주었다.

환경사업에 대한 시장 상황은 열악해지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있는 해외 법인들의 고군분투를 느낄 수 있었으며, 올해부터는 해외법인 간 소통을 확대하고 공조하여 공동 영업전략을 강화해 나가기를 약속하며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끝)

5.

KC그린소재, 삼척에코건자재 플랜트 준공식 개최

삼척에코건자재(주)는 2014년 케이씨그린소재(주), 한국남부발전(주), KB증권(주)이 약 265억원을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한국남부발전이 현물출자/석탄회 공급을 담당하고, KB증권이 우선주 투자, 녹색사업 전문기업인 KC그린홀딩스(주)의 자회사인 KC그린소재(주)가 전제적인 사업관리를 위탁 운영한다. 2015년 8월에 플랜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3년 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11월 15일에 삼척에코건자재 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석탄회 재활용 기술 제공/현금출자/사업 운영을 위탁받고 있는 KC그린소재가 향후 30년간 남부발전과 에코건자재를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삼척에코건자재는 현재 가동 중인 세계 최대 순환유동층보일러를 채택한 친환경, 고효율 석탄 화력발전소인 삼척발전본부 내에 에코건자재 플랜트를 가동하게 되며, 삼척발전본부에서 배출되는 석탄회를 재활용하여 연간 약40만 톤의 콘크리트 혼화재, 고화재, 아스콘 채움재, 잔골재, 복토재, 노체용 골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삼척에코건자재의 에코건자재 플랜트는 다른 발전사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화력발전소에서 약 800만 톤의 석탄회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발전사들이 석탄회의 처리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삼척에코건자재(주)의 에코건자재 플랜트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석탄회 재활용 기술은 석탄회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폐자원의 활용이라는 국가 친환경 정책에도 큰 기여를 하며,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이번 삼척에코건자재의 에코건자재 플랜트 준공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석탄회 재활용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6.

KC코트렐, 창립 45주년 기념행사

KC코트렐은 지난 11월26일,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창립기념일행사는 먼저 10년(전의순 선임 외 12인), 15년(김기모 선임), 20년(정재선 상무 외 8인), 25년(이태준 상무 외 6인)의 근속년수를 채운 임직원 포상에서 시작하여, 각 사업부 및 팀 별 우수모범사원 포상으로 이어졌다.



근속자 및 우수사원 포상에 이후에는 서동영 대표이사의 기념사와 신임 노조위원장 최경배 선임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KC코트렐의 임직원은 라운지로 자리를 옮겨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며 회사의 45주년을 축하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끝)



7.

KC코트렐 베트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KC코트렐 베트남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3일간 푸쿠옥(Phu Quoc)에서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KC코트렐 베트남은 2007년 1월 1일 연락사무소를 개소하여 2년 여의 준비 끝에 2008년 11월 28일 하노이시 팜흥 36에 법인을 설립한 이래로 KC 관계사들과 함께 응이선, VN2, VN3, 몽중2, 하틴발전소 등 베트남에 새롭게 설립된 주요 발전소에 환경설비를 공급하여 베트남의 환경보전에 앞장 서 왔다.

2017년부터는 기존의 대기오염방지 사업 외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의 환경서비스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고 탄원성에 KC Xanh 인허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위하여 2018년 4월에는 미딩 지역의 MD Complex 23층을 매입하고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이번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설립 이후 KC코트렐 베트남의 고문으로서 든든히 회사를 도와 주셨던 옥교수님(Professor Ngoc)과 연락사무소 시절부터 10년을 근속해 온 Ms Huyne에 대한 감사패 증정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다양한 일정을 통해 전직원들의 소속감과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다가올 10년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을 공유하였다 (끝)



8.

KC코트렐 인도,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지난 11월 30일, KC코트렐 인도법인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구르가온과 콜카타 사무실의 임직원들은 거리상 함께 모이기 어려워 화상으로 함께 하였다.

KC코트렐 인도법인의 CFO인 김진옥 부사장은, KC그린홀딩스 이태영 회장의 기념축사를 직원들에게 대신 전달하였으며, KC코트렐 인도법인의 한덕영 법인장이 이어 10주년을 맞이한 소감과 함께 KC코트렐 인도법인이 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고생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와 독려의 인사를 전하였다. 기념축사 이후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하여 직원들이 향후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할 동기를 부여하였다. 콜카타와 구르가온의 사무실에서 각각 케익을 커팅하는 세레모니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지난 10년동안 KC코트렐 인도법인은 끊임없는 혁신과 학습을 통해 성장과 인지도를 이루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KC코트렐 인도법인의 임직원들은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끝)



회식은 가볍게 귀가는 안전하게



THE
HUNDREDNINTH K C
NEWS
LETTER

제보 :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경영팀 여나래 대리 (narae@green-kc.com)